



'군포의 소리'를 찾아서 새로운 도전을!!

지난여름 유례없이 계속되던 더위가 막바지 기승을 부리고 있던 8월 15일 철쭉동산에서는 제 15회 군포예인예술제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예술군포를 열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많은 시민들과 예술인들이 펼치는 여름밤의 향연이었다. 수준 높은 창작활동과 다양한 공연이 펼쳐지는 가운데 단연 돋보이는 것은 그동안 군포의 예술에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군포예술상 시상이었다. 2018년 군포예술상 수상자는 국악협회 이영미 전 지부장(2010~2017)이다. 수상이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정작 본인은 이렇게 말한다.

“제게는 과분한 상입니다. 8년간의 국악협회 지부장을 하면서 그 직함이 제에 어울리는 일일까 고민을 많이 했었지요. 저는 주연보다는 조연에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여겨왔는데 지부장의 책임이 주어지니 그 임무를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원들의 도움과 예총회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지부장님들이 격려가 있어 연임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이영미 지부장은 국악협회의 살림을 정비하였다. 연회비를 정해 회원들의 소속감을 높이고 여러 가지 국악협회 사업도 만들어 회원들이 두루두루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다. 또 대보름 행사를 기획하여 군포시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역동적인 무대를 구성하기도 했다.

경기도와 군포시가 공동 주최하고 군포국악협회에서 주관한 '찾아가는 우리음악 나들이' '예인예술제 -樂에 취하다', 젊은 우리음악축제-‘깊어가는 가을, 국악의 향기’ 등의 행사는 이영미 지부장이 이끌어가던 국악협회의 주된 사업이었으며 2017년에 군포시의 여름축제로 제작 공연된 '수릿골 잔치날'은 오영진 작가의 '맹진사댁 경사'를 각색하여 국악협회와 연극협회, 무용협회가 공동 주관한 공연이었다. 연극협회에서 연출자와 배우가 참여하며 국악협회에서 악사, 민요, 풍물 등이 참여하고 무용협회에서 안무를 담당하여 3개 지부가 함께 하는 공연예술을 만들어냈다. 이런 콜라보 공연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은 이영미 지부장이 국악협회 회원들뿐만이 아니라 타 장르의 예술인과의 소통과 교류에도 남다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2019년 새내기 대학생으로 도전하다

8년간의 지부장 직책을 내려놓고 난 후의 근황을 물었다. “연임까지 8년을 했는데 주변에서 잘 했다고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사실, 처음 2년은 많이 힘들었어요.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라……. 하지만 제 앞의 지부장님이 워낙 중심을 잘 잡아주신 덕분에 저는 그 자리를 잘 지키기만 해도 됐지요. 정작 8년이라는 세월이 만만치 않았음을 느낀 것은 지부장의 책임을 끝내고 나서였어요. 저의 모든 생활이 국악협회 중심으로 돌아갔고 만나는 사람들도 소리와 창, 풍물을 하는 국악과 관련된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날 국악협회의 행사가 진행되고 있고 어디에선가 공연이 펼쳐지는데 한편으로 내가 이제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허탈한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지금 한창 사업을 진행해야 하고 그러려면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난 뭘 하고 있지? 그런데서 오는 상실감이 한동안 계속 됐었지요.” 그런데 다행히 새로운 전환점이 생겼다. 그것은 국악협회 지부장이 아닌 소리꾼 이영미로 돌아가 2019년부터 만학도 전형으로 백석예술대학교에서 음악학부 전통음악 및 국악공부를 시작하는 일이다. 중요무형문화재 제 57호 경기민요 전수자인 소리꾼 이영미가 19학번 새내기가 되어서 젊은 친구들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펼친다.

이영미 지부장이 대학에 진학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나름대로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지만 얼마 전 자격을 증빙할 수 없어서 하고 싶은 일을 못 하게 된 계기 때문이다. 소리 예술이 라이선스로 증명되는 시대를 개탄해 보기도 했지만 마음을 바꿔 먹었다. 준비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높이 평가해야 한다는 것, 준비에 들인 시간과 비용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 등을 깨달았으며 또 요즘은 워낙 소리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누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일일이 알아달라고 할 수 없고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영미 지부장은 국악 전반에 걸친 모든 것을 다 알아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몰라서 못 가르치는 것보다 알면서 안 가르치는 게 맞지 않는가,라며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함을 강조해서 이야기 했다. 이런 결단을 내리게 된 데는 두 딸의 도움이 컸다.

“엄마, 할 수 있어. 이제 우리가 밀어 줄게요.”

힘들게 키운 아이들이 이제는 엄마의 전폭적인 지지자가 되어 주었다.

즐거운 소리전수자 이영미

소리꾼 이영미는 무슨 일을 할 때, 속전속결보다는 천천히, 느리게 가는 스타일이다. 하지만 일단 시작하고 나면 꾸준히 성과를 내는 사람이기도 하다. 그런 면에서 나이

들어 공부를 시작하는 데 두려움도 있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가자, 라는 결심을 하게 된 것이다.

소리를 시작한 지 어언 20년이 되어가는 요즘은 연륜으로 목소리가 익어서 나오는 소리의 매력에 흠뻑 빠졌다. 결국 소리를 내는 내면에 삶의 다양한 경험과 생각, 한(恨) 등이 켜켜이 쌓여 멋진 울림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뒤늦게 소리를 배우는 어르신들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다.

그는 소리를 가르치는 선생으로 아주 오랫동안 지도를 해 왔다.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청소년, 성인들, 그리고 노년 세대에 이르기까지 그 연령대가 다양하다. 그런데 유독 어르신들이 편하다. 아마 어머니 나이가 마흔이 되어 낳은 늦둥이로 어머니와 비슷한 연배의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기 때문이 아닐까. 의왕성당 노인대학, 군포 늘푸른 복지관, 당동에 있는 군포노인복지관 등에 나가고 있는데 요즘은 100세 시대란 말이 실감이 날 정도로 노년 세대의 수강생들이 매우 적극적이다. 노년 세대의 강의를 개설하면 최소 5년씩은 하게 되니 자타 공인 노인전문 강사라고 하기도 한다.

이제, 소리꾼 이영미는 국악협회 지부장으로서는 활동하던 때와는 달리 좀 더 자유롭게 공연을 할 수 있다. 협회의 지부장이었을 때는 리더로서 회원들과 조율해야 하고 협회 살림까지 도맡아 하느라 다른 여유가 없었지만 이제는 소리를 널리 전수하고 함께 즐기면서 할 수 있다. 국악은 다른 장르보다 우리 민족의 삶과 매우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이영미 지부장은 전통문화를 심도 있게 이해하고 사람의 정서를 바탕으로 한 소리로서 멋지고 격조 있는 공연을 펼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사람들, 아름다운 국악협회 식구들

소리꾼 이영미 지부장에게 지부장 재임 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무엇인가를 물었다.

“정월대보름 행사를 준비하면서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았던 일들이 기억납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반응이 좋았고 제가 인맥이 넓지 않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을 때 회원들이 모두 힘을 합쳐 공연을 준비하고 같이 연습하고 했던 일들이 스쳐 지나가네요. 한 번은 관현악과 합주를 하는데 악보가 필요했어요. 포항에 있던 어떤 분이 올려놓은 동영상 보고 무작정 전화해서 악보를 구하고 싶다고 했지요. 그 분이 메일로 하나하나 보내주어 원하는 악보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한 분 한 분 인연을 맺고, 공모를 하고, 기획해서 공연하고……. 지금 생각해 보니 대단했던 것 같아요(웃음).”

인터뷰 | III. 군포예술상 수상자 이영미

문화예술회관 마당에서 했던 정월대보름 행사 때 솟대를 만들어 세웠는데 무너질까봐 붙잡고 있었던 일도 있었다고 한다.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저마다의 소원을 담아 나뭇가지에 매달기도 했고 마당 한쪽에서는 떡메치기를 해서 고소한 인절미를 두루 나눠 먹기도 한, 참으로 따뜻했던 정월대보름 행사였다. 그 시간과 공간을 함께 한 사람들은 더욱 따뜻했다.

네가 아는 소리가 다가 아니다

이영미 지부장이 이십 여 년 전 처음 소리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 집에 와서 소리 연습을 하고 있으면 딸아이들이 귀를 막으며 “엄마 하지 마~.”라고 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소리하는 엄마에게 별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작은 딸이 고등학교 가기 전에 잠깐 가야금을 배운 적이 있었는데 소질을 보였다.

그후 우연히 엄마를 따라서 경기민요 이수자이며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지도단원으로 계신 이금미선생님을 만나 국악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런데 소리를 시작한 지 2년 밖에 안 됐는데 중앙대 수시에 덜컥 합격을 했어요. 국악예고 다니던 애들이나 오랫동안 공부한 아이들은 안 됐는데 운이 좋았던 거죠.

이영미 지부장은 그렇게 겸손하게 말했지만 유전자가 어디 가겠는가. 졸업할 때까지 아산재단에서 지원을 받으며 스스로 해낸 딸이 기특하다. 딸은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칠레나 독일 등 세계 순회공연을 하기도 했다.

이영미 지부장은 딸에게 이렇게 말한다.

“네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다. 아이들한테, 어른들한테, 또 모르는 사람들에게 늘 끊임없이 배우는 게 소리다. 현장에서 배우는 거야. 현장에서 배우는 게 더 많을 것이다. 겸손해야 한다.”

엄마로서 예술가의 길을 가는 딸에게 격려해주고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 각 대학에서 예술가를 배출하지만 정작 그들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무대는 없다. 있다 하더라도 문이 좁고 지방으로 가야하는 경우가 많다.

소리하는 예술가로 산다는 것이 힘들기도 하겠지만 잘 견뎌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군포의 소리’를 찾고 싶다

군포처럼 중앙과 가까운 수도권에서 예술 하는 일은 힘들다. 한 시간이면 전철로 서울에 가서 공연을 보고 오는 실정이라 지역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찾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다. 그리고 대중들은 더 이상 보고 듣고 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 그들도 예술하고 싶다고 한다. 요즘은 생활문화동호회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 국악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물론, 예술의 확산은 바람직하다. 예술창작품을 만들어 대중들에게 전하는 수직적 문화예술 활동이 아니라 이제는 대중이나 관객 모두가 참여하고 싶어 하는 수평적 문화예술의 시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예술은 프로예술가나 동호회 등 취미로 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지향해야 할 가치이다. 그들 모두가 어우러진 속에서 더 두드러지는 모습으로 탈바꿈해야 할 것이다. 내 것만이 최고다, 라는 생각은 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이영미 지부장의 예술에 대한 지론이다.

그는 앞으로 군포의 소리를 찾고 싶다고 한다. 가사는 있는데 멜로디가 없는 것은 곡을 붙이고 지경소리와 같은 군포 대야미 지역의 노동요를 발굴 보존하는 일에 앞장설 것이다. 안양소리보존회처럼 군포지역에서도 이곳의 특별한 소리들을 찾아 재연하는 일에 큰 가치를 두고 우리의 전통을 밀고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군포의 소리꾼 이영미가 할 일이다.

대담 및 글 오은희



세월에 묻어난 시향을 지닌 전현하 시인 10회 군포문학상 수상

2018년 포럼 전통과 미래가 주관하는 10회 군포문학상은 30여 년 동안 올곧게 시조를 사랑하며 시조시인으로서 한 길을 걸어온 전현하 시인에게 돌아갔다. 그의 첫 시조집 『창가에 머문 달빛』과 두 번째 시조집 『세월이 남긴 지문』은 30여 년 공직생활을 해온 그의 삶이 시조로 승화된 결정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현하 시인을 만나 군포문학상 수상소감과 그간의 시조시인으로서의 삶과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Q 포럼 ‘전통과 미래’에서 주관하는 군포문학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군포문학상을 수상한 소감은 어떠신지요?

유난히도 가뭄과 폭염이 심했던 한해였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해도 저물어 가는군요. 분주히 지나온 시간이지만 뒤돌아보니 거들 것이 미미한 해였습니다. “문인은 작품으로 말한다.”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작품을 통해서 옳은 것, 바람직한 것, 해야 할 것, 또는 하지 말아야 할 것 등에 대한 생각이나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에 관한 존재 여부를 다시 한 번 살펴봄으로써 조화롭게 해석하려는 과제를 요구하고 있다 하겠지요. 인간사도 마찬가지로 아닐까 합니다. 복잡다단한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살아 갈 것인가, 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 해야 하겠지요. 저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려울 때마다 늘 책과 함께하고 자

연을 벗 삼으며 살아 왔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신도시의 입주와 함께 군포문인협회를 창립한 때가 옛그제 같은데 어느덧 20년이 훨씬 넘었군요. 제10회 군포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영광입니다.

Q 1987년 <현대시조>신인상을 수상하고 1988년 <시조문학>에 추천되신 후로 작품 활동을 시작하신 경로 알고 있는데 시조시인으로서의 길을 가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을까요?

시조는 한국의 대표적 정형시로서 우리 시 가운데 가장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졌으며, 현재까지 살아 있는 유일한 장르입니다. 그리고 시조는 우리 민족의 시이며 겨레의 시로써 우리 조상의 맛과 슬기, 색깔과 숨결이 담겨진 시입니다. 그러므로 민족의 상징이며 또한 한국인의 얼굴로



1000년을 지켜 내려와 이제는 국가의 위상을 높인다고 합니다.

시조의 본래의 이름은 시절가조, 즉 그 시대의 사상과 감정을 노래한다, 는 뜻이지요. 우리가 현대시조를 쓰자는 것은 옛사람의 시조를 답습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형 속에 현대의 사상과 감정을 담은 한 수의 시조를 쓰는 것으로 우리 문화의 자존심이라 생각합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다. 시조는 가장 한국적이다. 그러므로 시조는 세계적이다. 시조의 정형성의 희소성이 곧 세계성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요. 정지용도 “순수 조선적 포예지를 담기에 가장 맛깔스럽고, 읊을 수 있고, 부를 수 있는 정형시로서 악기로 치면 단소와 같이 신묘한 시형이 시조 삼장 외에 없었다.” 고 썼습니다. 저는 시조가 그냥 좋습니다. 고시조는 물론 현대시조도 나의 정서와 맞아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Q 등단하고 벌써 30여년이라는 긴 세월을 시조 시인으로 살아오며 시를 쓰는 모티브는 무엇인지요? 또 시에 대한 영감은 어디서 찾으시는지요?

우선 시조의 맛과 멋에 대한 생각을 해봅니다. 시조의 맛은 정연한 3장 3행에서 나오지요. 이미 널리 통용되는 3.4 3.4/3.4 3.4 /3.5 4.3 자수로 엄정하진 않지만 내용의 자유를 구가하는 정형시형이지요. 시조다운 독특한 맛은 된장 맛이 뚝배기에 조용하듯 형식의 정형성에 의존하며, 형식은 내용을 규정하고 정형시가 지닌 형식 못지않게 그 내용의 유연한 운을 생성에 천착한다 하겠습니다. 또한 시조는 천. 지. 인 삼재와 음양오행의 상생 원리가 바탕을 이룬 율조림으로 정의되며 격조는 서정의 유연한 율조림에서 발현되고, 그 지점이 시조의 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조의 멋은 가락에서 연유한다 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 순환하는 원리를 모방하며 자연스럽게 가락이 붙어 쉽게 율조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원리는 훈민정음 창제 원리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시조의 맛은 3장 3행 기사형식으로, 멋은 3. 4조를 기조로 삼아 12음보를 규칙적으로 반복하는 데서 발현된다, 할 것입니다. 한국시가 곧 세계적인 정형시로 대접 받는 근거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느리지만 꾸준히 이 길을 가고, 자연과 인간이 따로 일수 없듯이 자연의 숨소리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위안을 받으며 우리의 전통가락을 노래하려 합니다.

인터뷰 | IV. 군포문학상 수상자 전 현 하

Q 공직에서 퇴직하신 후에 몇 년째 꿀벌과 동행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꿀벌과의 일상에서 체험하신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다면 한 가지 소개해 주세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농사는 하늘이 짓고 사람은 거들 따름이다” 꿀 농사도 일 년에 한번이지요. 꿀 하면은 아카시아 꿀이 7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카시아 꽃이 필 때 150mm의 비가 내리는 바람에 한 방울의 꿀도 생산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농사는 하늘이 한다. 꿀벌 농사도 하늘이 하는 것이며, 사람은 그냥 도와 줄 따름이다.”라는 말이 실감난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단테는 ‘자연은 신의 완벽한 예술품이다.’ 라고 했나봅니다. 인간의 한계를 느낀 해였습니다.

Q 군포문인협회의 지부장으로서는 지난 1년을 보내셨는데 앞으로의 군포문인협회의 3년의 방향은 무엇인지요? 또한 군포예술의 발전을 위해 군포의 문인들이 지향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요?

돌이켜 보면 (사)한국문인협회 군포지부가 창립한 지 2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동안 많은 발전을 하여왔고, 특히 지역문화 단체로서의 위상정립 및 막중한 책임도 지니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연례행사로 추진하는 시인 문학 발간, 군포백일장, 사회집 발간, 수리시낭송회, 가을 시화전, 예인예술제 참가 등 군포시와의 협력관계로 많은 일을 해 왔으며,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문학인들의 역할이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1년을 뒤돌아보며, 문제점을 하나하나 따져 보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할 것은 협력하여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군포문인들은 잘해 왔고 또 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인은 좋은 작품을 쓰는 게 우선이겠지요. 좋은 작품을 많이 쓰시길 바랍니다.

Q 끝으로 이 시대의 시인으로 또 시조시인으로서는 앞으로 어떤 작품을 남기고 싶으신지요?

외국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빨리 가려는 욕심을 부려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느리지만, 시조시인의 길을 걸어 갈 것입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라는 말처럼 즐기면서 작품을 쓰고, 읽고, 느낄 것입니다. 자연과 함께!

산정소묘(山頂素描)

전현하

반도에 뻗은 정맥 하늘 향한 저 위용
한줄기 의연한 자태 울멍울멍 이어지고
억겁의 비바람에도 변할 손가 저 기상

숫아 오른 봉우리는 땅 끝까지 이어지고
해와 달 품어 안고 안으로 품은 태고
천지간 간직한 비밀 인고의 일월이어

바람소리 새소리는 천상의 노래되고
천둥번개 우르릉 광 구름타고 비가와도
철따라 변하는 자태 화려한 활엽수여

산 아래 터를 잡은 고을고을 인정아
골마다 살아온 애기 설화로 피어난다.
자연의 섭리 앞에서 순리대로 살라한다.

대담 및 글 이은희

